

지 상 범 석

# 큰 욕심쟁이 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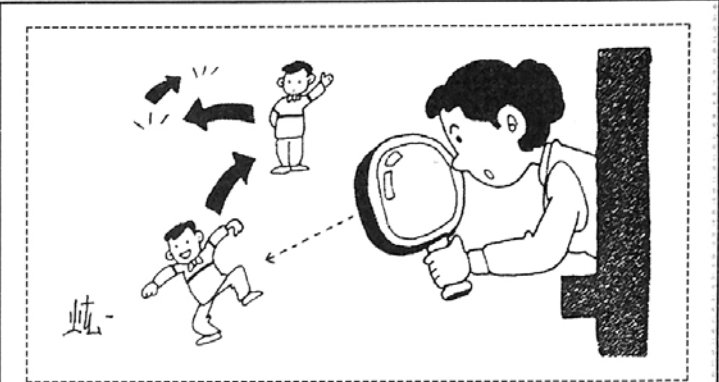
## “청정진여 드러내는 노력 하루이틀 한생두생 거듭되면 여래의 성품 솟아납니다”

생심으로 돌아 왔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진여가 내 몸안에 가득차고 우주로 채운다는 가르침을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내 몸안에 중생심과 여래의 자성이 함께 들어 있어 어느 마음을 내느냐에 따라 중생이 되기도 하고 부처가 되기도 한다는 이치를 아셨을 겁니다. 부인해서 더 설명해 볼까요.  
비가 오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날씨는 무덥고 물은 땀으로 끈적거립니다. 어제 다 못한 일을 오늘 또 해야 하는데 의욕은 생기지 않고 나른하기만 합니다. 입맛이 없어 식사도 많이 못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스트레सान 안겨 줍니다. 출근길은 교통정체를

장을 쌓아가지 말고 절대의 욕심, 욕심이라는 분별 마저 뛰어넘는 욕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중생이란 삶이 있는 이 순간의 마음으로 극락도 가고 지옥도 가는데 이왕이면 지옥은 달라고 극락을 많이 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극락에 오려 머무는 것이 법신을 이루는 것임을 모를리 없는 불자들이건만 그러한 노력을 보이지 않으니 세상은 점점 각박해지고 환경이 파괴되고 대형 사고가 줄을 잇는 것이 아닌가 반성해 보게 됩니다.  
한시도 게으르지 말고 진여의 자리를 찾아 청정한 법신을 이루어야 합니다. 살아가는 순간순간 진여의 자리를 드러내도록 노

을 가득 채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원력을 의심하는 동안에는 어떠한 일도 이룰 수 없습니다. 부처님의 법에 귀의해 열심히 수행하면 진여법계로 들 수 있다는 굳은 믿음을 갖지 않으면 성불은 멀어져만 가는 것입니다. 자신을 믿고 부처님 법을 믿고 수행의 구경에서 얻을 열반의 대업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법집요송경>은 믿음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으니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온갖 진실한 것을 보려 하거든 법의 기르침을 즐겨 들으며 인색하고 옹졸한 마음을 버려라

삶이 부처님을 닮아가는 지름길을 믿는 것이 오늘날 불자들이 지녀야 할 신행의 기본 자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사람 사는 모양이 점점 복잡해져 갑니다. 인성도 함께 잘사는 사회를 가꾸기보다는 나 한 사람 우리 한 가정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혼자만 잘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법계는 못 중생들이 사는 곳이자 수 많은 부처들이 펼쳐 보이는 극락의 세계입니다.  
나 혼자 잘 산다는 생각은 탐욕입니다. 나를 잘 살게 하기보다는 나와 이웃을 곤경에 빠뜨리는 불상사입니다. 이 복잡한 세상에서 혼자만 잘 살기 위해서는 남에게 피해를 줘야하고 스스로 죄도 지어야 할 것이므로 청정한 법계를 지옥으로 만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인간을 비롯한 모든 중생은 함께 잘 살아야 합니다. 지금 이 모습으로 살아 있는 중생들이 언제 또 어떤 모습으로 만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생김새를 따질 것 없이 모든 중생이 함께 잘 살아야지요. 약하다고 마구 살생할 수 없는 것이 중생계의 질서입니다. 하물며 사람들의 사회에서는 서로 존중하고 아끼는 마음이 얼마나 값진 것이겠습니까. 모두 합



색수상행식이 다 공한데도 불구하고 눈앞에 보이는 자연이 이렇게 전개되어 있는 것을 불교에서는 일체즉유심조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 공한 가운데서 이렇게 생생하게 나타나 있는 자연을 설명하려면 물리학만으로는 부족하지만 현대물리학에서 설명하는 것도 일체즉유심조와 비슷한 점이 많다. 물리학에서 인간이 관측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관측자 자신이 창조하여 보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불확정성 원리와 이 원리를 일반화시킨 상보성원리는 것이 바로 일체즉유심조를 뒷받침하는데 먼저 불확정성원리를 살펴보기로 하자.  
일상적 경험의 세계에서는 사람이 사물을 관찰한다고 해서 사물의 모습이 달라지지 않는다. 내가 북한산 꼭대기의 백운대를 쳐다본다고 해서 백운대의 모습이 바뀌거나 백운대가 어디 다른데로 옮겨가지 않는다. 누가 쳐다보든 모든 백운

과 같다. 사라진 아이를 찾다가 냇가에 있는 것을 보는 순간 또 사라지게 되는 것과 같이 관찰행위는 언제나 관찰대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된다.  
관찰대상과 관찰자는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이기 때문에 관찰자의 관찰행위는 관찰대상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 사실을 물리적인 양으로 표시한 것이 바로 불확정성 원리이다. “입자의 위치와 속도를 동시에 정확히 측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불확정성 원리이다. 매우 간단하지만 이 표현에 바로 일체즉유심조에 이르는 원리가 있다. 사람이 입자의 위치를 알고자 하면 이 입자에 빛을 쬐어 빛이 입자에 부딪친 후에 나오는 빛을 보아야 하는데 입자에 부딪친 빛이 입자를 때려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마치 당구공이 다른 당구공을 때려 튕겨나가게 하는 것과 같이 빛

“입자의 위치·속도 동시측정 불가능하다”  
‘본다’ 관찰자 창조 행위... 존재확률 붕괴

내가 항상 거기 그 자리에 그 모습 그대로 있다면 백운대는 객관적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객관적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자연의 본질이라면 이러한 자연에 일체즉유심조라는 말을 쓸 수가 없다. 그러나 일상적 경험의 세계를 포함하여 모든 물질과 자연현상의 기본은 이루는 미시적 세계 즉 원자(原子)이하의 세계에 들어간다면 사정은 달라진다.  
한때 물리학자들은 원자핵 주위를 도는 전자의 위치와 속도를 정확히 알아내려고 무척 애를 썼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알려진 고전역학의 입장에서 볼 때 어느 순간 입자의 위치와 속도를 알면 입자에 관한 모든 것을 정확히 알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자의 세계에서는 어떤 입자의 위치와 속도를 동시에 알아낸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위치를 알아내는데 순간 속도가 크게 변해 다음순간 입자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게 되고 속도를 알아내면 이번엔 어느 위치에서 그런 속도를 갖는지 알 수가 없었다. 마치 어머니가 밖에서 노는 어린아이가 어떻게 하고 있나를 알기 위해 살펴볼 때 놀이터에서 노는 모습을 보고서 보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어린아이가 어디론가 사라지는 것

이 입자를 때려 튕겨나가게 하는 것이다. 내가 입자의 위치를 아는 순간 입자의 속도가 크게 변하는 속도를 알 수가 없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속도를 재면 위치가 변하여 어디에 입자가 있는지 모르게 된다.  
불확정성 원리가 말하는 것은 사람이 입자의 위치를 관찰할 때는 입자와 사람 사이를 강한 빛으로 묶어 놓아야 하는데 이 강한 빛이 입자의 속도를 바꾸어 놓는다는 뜻이다. 관찰할 때마다 변화를 주게 되니 ‘본다’는 것은 관찰자가 관찰하는 것을 창조해서 보는 것이다. 그러면 관찰하기 전에 입자는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있었는가? 있었기에 빛을 쬐어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하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빛을 쬐어 입자를 보기 전까지는 입자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존재할 확률만이 전 공간에 퍼져있을 뿐이다. 빛을 쬐인 순간 확률파는 붕괴되어 버리고 어디선가 입자가 불 속 튀어나올 뿐이다. 사람이 입자를 창조해서 보는 것이다.  
관찰한다는 것은 의식한다는 뜻이다. 존재를 의식한다는 것은 창조하여 의식하는 것이다.  
(이화여대 교수·물리학과)

# ‘계율 지키’ 은 부처님 닮아가는 기본 신행 생활 서로 존중하며 ‘나’ 희생할줄 알아야 극락세계

치워야 하니 아침부터 몸은 파김치가 되어 버립니다. 이렇게 허덕이며 살아가는 무익을 하는가라는 생각이 글썽 같이 눈자만 지각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달려가야합니다. 정말 산다는 것은 고통의 연속입니다. 오늘 밤에는 술이나 싹쓸 마시며 스트레스를 풀고 마음먹습니다. 그래도 술값이 워낙 비싸 어디가서 될 마실지 쉽게 결정을 내리기도 못하는 하루가 지나갑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동안의 여러분은 무엇이었습니까. 즐거웠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야기를 듣는 동안 여러분은 지옥 중생이었을 겁니다. 지옥이 죽어서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사는 이곳임을 절감했을 겁니다. 물론 이보다 더 끔찍하고 고통스런 경우가 더 많을테니 살아 있다는 것이 얼마나 허거운 노릇인가요.  
여래의 법신은 영원불변이어서 시간과 공간을 가리지 않고 그대로 여여합니다. 누가 그 법신을 보고 그렇게 닮아가고 또 그렇게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부처님께 귀의한 모든 중생은 여래의 법신을 이루겠다는 절대적인 욕심을 가져야 합니다. 큰 욕심쟁이가 되라는 것이지요. 보잘 것 없는 것들을 탐내며 탐심을 키우는 업

력해야 했습니다. 그 노력을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하기위해 필요한 것이 있으니 바로 계율입니다. 계(戒)는 행위와 습성과 성격까지를 아우르는 것이고 율(律)은 계에 대한 질서와 규칙, 삼가고 다스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율은 자신의 삶을 혼돈으로부터 건져내는 스승입니다. 출가자에게는 출가자의 계와 율이 있고 재가자에게는 재가생활에 알맞은 계와 율이 있습니다. 계와 율이 스승이 되어 사는 사람은 그 스승을 모시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빨리 진여의 자리를 볼 수 있습니다.  
재가신도에게 주어진 다섯가지 계와 십선계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이기에 앞서 영원한 진리의 몸을 이루는 근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이미 오계와 십선계의 내용을 잘 알고 있으니 무엇무엇을 시시콜콜 따지는 것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계율에 의해 살아 가는 사이사이엔 ‘이 계율을 지키면 정말 부처가 될 수 있을까’라고 의심한다거나 ‘힘들여 지키기 어려우니 대충 지키고 참회하지 뭐’라고 안일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의심하는 그 순간 모든 악업이 흉수같이 욕심을 파괴하여 중생심

그것이아말로 최상의 믿음이다. 믿음은 능히 생사로 강을 건너고 그 복은 아무도 빼앗지 못하며 그것은 어떠한 도로도 막나니 그러므로 들에 사는 시몬은 즐겁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성불을 향한 수행의 첫째 요건이자 끝까지 잃어서는 안될 자세입니다. ‘믿는 마음은 도의 근원 공덕의 어머니요 길이길이 모든 착한법을 길라간 다(信爲道源 功德母 長養一切諸善法)’는 말도 새겨 두어야 할 것입니다.  
굳은 믿음은 생활의 질서를 줍니다. 스스로 삶의 질서를 잘 지키는 것은 계율을 잘 지키는 삶이기도 합니다. 계율을 잘 지키는

남에게 피해 주더라도 혼자 잘 살겠다는 생각은 청정법계 지옥 만드는 탐욕

계 돈독한 믿음을 지니고 흐트러지지 않는 계율로 살고 남을 위한 줄 알고 나를 희생할 줄 아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자세에서 진여의 청정국토가 밝아 오는 것입니다.  
법계의 모든 중생이 함께 잘 살아 복락을 누리는 것이 대승의 도리입니다. 함께 큰 수레를 타고 진여법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부처님의 국토는 치우침도 없고 모자람도 없고 남치지도 않는 곳입니다. 그 국토에 이르는 길은 내 몸속에 가득한 진여의 자리를 드러내 우주를 충만케 하는 것입니다. 일체의 중생이 이 도리를 알아 진여성을 드러내려고 발원하고 수행하는 것이 급하고 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 청정운동 실천전국대회

## 깨끗한 마음 깨끗한 세상

청정운동 선언문

오늘날 이땅의 겨레는 화합의 가치를 잃고 지혜로운 삶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인간 상실의 시대를 살고 있다.

종교는 권위와 세력을 위한 집단 이기심으로 갈등의 불길이 팽배되고 있으며 정치는 권모와 술수로 감정의 대립을 계속하여 불신과 오욕의 어둠속에서 민족의 동질성을 잃어가고 있다. 물질에 대한 무분별한 욕심은 공기와 물, 나무와 땅을 훼손하여 다시는 되돌리기 어려운 상태로 이 강산, 이 국토를 더럽히고 있다.

오늘 우리는 결사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으니 그것은 “깨끗한 마음, 깨끗한 세상”을 이루고자 하는 “청정운동”의 길에 우리 모두가 하나되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은 몸과 마음을 바쳐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활 속에 살리고 올바른 사회 질서를 선도하여 이 땅을 깨끗이 함에 큰 물줄기를 이루고자 함이다.

이러한 모든 것은 본래 부처님의 가르치심이었고 이땅의 겨레가 수천년을 지켜온 아름다운 모습이었음을 자각하며 “청정운동”의 대열에 우리 함께 매진할 것을 선언한다.

청정운동 ‘96실천지침

“깨끗한 마음, 깨끗한 세상”을 위하여

- 매주 월요일은
  - 아침 예불을 올리고 독경, 참선 등 수행을 한다.
  - 술, 담배, 고기를 먹지 않고 음식물을 남기지 않는다.
  - 말을 삼가고 화내지 않는다.
  - 대중 교통 수단을 이용한다.
- 매월 1회 이상
  - 가족이 함께 법회에 참석한다.
  - 가족과 직장 단위로 한달간 돈을 모아 보시한다.
  - 환경 개선 및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 활동을 한다.

대회일정

지역	전주	광주	대전	논산	부산	대구	서울
일시	6월9일(일) 오후 2시	6월18일(화) 오후 7시	6월28일(금) 오후 7시	6월30일(일) 오전 10시	7월6일(토) 오후 3시	7월7일(일) 오후 3시	7월21일(일) 오후 2시
장소	전북예술회관	남도예술회관	우송예술회관	연무대 법당	부산일대대강당	대구시민회관	다보빌딩대법당
연사	정병조	강건기	송석구	고은	목정배	이기영	이기영 외
연계	“깨끗한 마음, 깨끗한 세상”						회향대회
주최	“청정운동”추진협의회						
주관	한국불교대원회 전북불교대학	한국불교거제지역의 광주불교승인회	대불연총동문화 대전 대불연 동문화 외	대한민국국회공군 군승단 외	대한불교청년회 대불청 부산 지구의	구도회 대한불교대불회	우리는 선우 대한불교진흥원
협찬	동국제강주식회사						
문의	전북불교대학 0652-86-3977	광주불교승인회 062-226-5161	대불청대전지구 042-585-7790	호국 연무사 041-741-3734	대불청부산지구 051-862-0082	대한불교대불회 053-254-2430	대한불교진흥원 02-719-2606

청정운동 추진협의회 : 121-050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140 다보빌딩 대한불교진흥원 내 / 전화 : 02-719-2606 / 팩스 : 02-719-5052